



이번 호부터 지난해 중단되었던 해외레이더 칼럼을 다시 꾸민다. 방진회 해외사업팀의 협조로 주로 해외 방산업체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해외레이더에 독자 제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

미국과 유럽의 연계 강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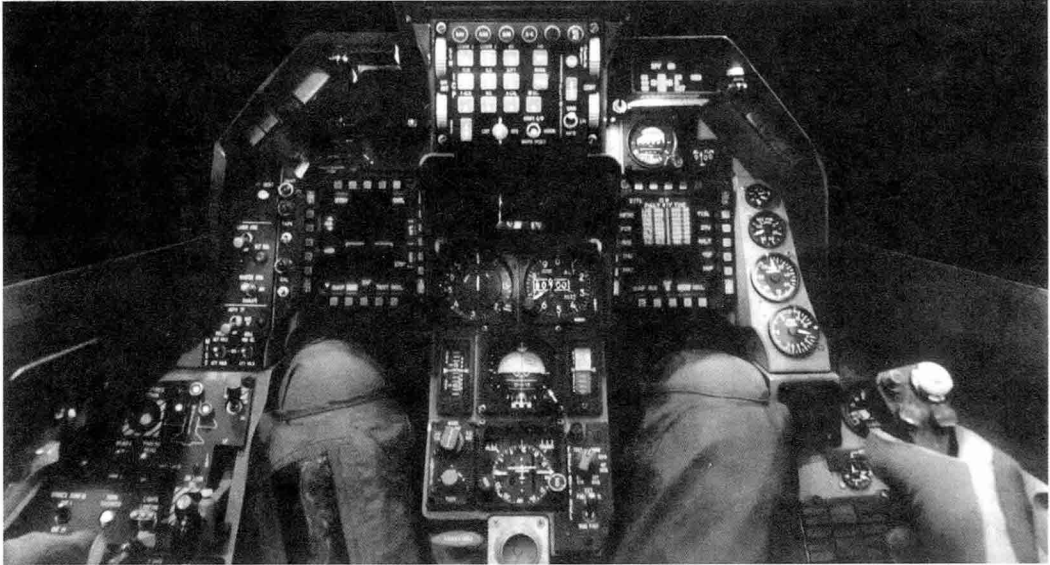
영국 GEC사가 미국 방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는 방산분야의 국제적인 합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중에 있다.

美 국방부 갠슬러 획득기술차관이 입안중인 새로운 규정은 '99년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업체가 미국 방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적절한 경쟁 보장에서 비밀 기술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美 국방부는 의회 및 여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며 갠슬러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초국가적인 업체간 연계를 장려하고…… 비밀이 보호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갠슬러 차관은 국제적인 합병을 증진시킬 조치를 취해서 미국은 미국 업체에서만 구매하고 유럽은 유럽 업체에서만 구매하는 "미국 요새"와 "유럽 요새"의 탄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갠슬러 차관의 이 지침외에도 美



LANTIRN을 갖춘 GD사의 F-16 C/D 전투기 조종실. HUD(Head-up display)는 GEC Avionics에서 공급했으며 넓은 시야 관측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헨 국방장관은 건의사항을 위한 고위 위원회를 최근 구성하였으며 국방부의 국방과학위원회와 국방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에 제품 및 용역을 판매코자 하는 외국 업체의 능력을 제한하는 "Buy America" 규정이나 첨단기술의 공유를 통제하는 낡은 규정들과 같이 대서양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여러가지 장애사항이 축소 또는 철폐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관련인사들의 의견이다.

스펠라 영국 국방 정부차관은 Buy America 규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제품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개선되었으나 여전

히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美 국방부가 대서양 지역 및 다른 국제방산 합병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인사들의 의견이다. 전임 美 해군 연구개발 차관보이며 항공산업협회 회장인 더글라스씨는 "준비여부에 관계없이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서양지역에서 최초 사업은 영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전 자부문의 대형업체인 GEC는 미국 방산업체와의 주요 거래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완전한 인수나 합병보다는 합작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중역진에 따르면 GEC는 현재 노드롭 그루만과 록히

드 마틴 등 적어도 두 군데의 미국 주요업체와 협상중에 있다.

노드롭 그루만사에서는 GEC와 사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협상 경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 고위 임원은 "영국과 여러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적인 합작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분석가는 "록히드 마틴과의 큰 거래가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스펠라 차관은 완전한 소유권보다는 합작 가능성이 많다고 믿는다면서 GEC가 어느 업체를 선택할지 추측하기는 너무 이르며 "모든 업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JDW '98. 12. 23 P.19〉

마그나 장갑전투차량 업체 매각

오스트리아의 유일한 장갑전투차량 업체인 Steyr-Daimler-Puch Spezialfahrzeug AG & Co KG가 오스트리아 중심인 컨소시엄에 매각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주주에는 Creditanstalt 은행의 전임 회장인 슈미트-치아리씨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가장 오래된 은행중 하나인 Creditanstalt는 '97년 사회주의 계통인 오스트리아 은행이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슈미트-치아리 회장과 다른 중역들이 사퇴한 바 있다.

상세한 매각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3천7백만불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엔나 소재 Steyr-Daimler-Puch Spezialfahrzeug AG & Co KG는 현재 마그나 유럽사가 소유하고 있다.

마그나 유럽은 현재 자동차 부품 및 체계의 설계, 개발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사의 핵심활동에 Steyr-Daimler-Puch Spezialfahrzeug AG & Co KG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동사는 방산장비 설계 및 제조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

마그나 유럽에 따르면 Steyr-Daimler-Puch Spezialfahrzeug AG & Co KG 매각 목표는 현 인력의 일자리 보장, 비엔나 소재 공장의 존속과 생산 보장, 신임 사주를 위한 적정 판매 수익, 적절한 노-하우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식 해법이다. 이 컨소시엄에

는 오스트리아의 Maschinenfabrik Liezen과 미국의 General Dynamics가 포함되어 있다.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사가 최근 매입한 AV Technology는 과거 수년간 Steyr-Daimler-Puch Pandur 6×6 장갑인원수송차를 수출용으로 제작해 왔다.

또한 AV Technology는 첨단 무기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4×4 차량의 설계, 개발 및 생산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수출시장용이다.

AV Technology는 현재 쿠웨이트 국경수비대용 Pandur 차량 70대의 잔여분을 제작중에 있으나 140대를 추가하여 총 210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엔나 소재 Steyr-Daimler-Puch Spezialfahrzeug AG & Co KG공장에서 보츠와나에서 사용할 SK 105

경전차를 제작하고 있으며 벨기에, 슬로베니아, 미국내에서 Pandur 생산을 위한 부속장치를 제작하고 있다. 동사는 오스트리아 국방부로부터 Ulan 케도형 보병전투차량 1차분 112대의 계약을 곧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업체외 최소 두군데의 독일 업체가 있었으며, 이

Steyr-Daimler-Puch Pandur 6×6 장갑 인원 수송차





Eurofighter 2000 차세대 전투기

는 수년전 독일 장갑전투차량업체인 Mak를 인수한 Rheinmetal 및 Wegmann과 제휴한 krauss-Maffei사였다. Krauss-Maffei와 Wegmann은 1999년 1월 1일부로 KMW사가 된다.

(JDW '98. 12. 23 P.20)

BAe-Marconi 합병 : 진전인가 후퇴인가?

최근 유럽의 방위산업 합리화를 위한 조치중 가장 대규모인 British Aerospace(BAe)와 GEC 방산 자회사 Marconi Electronic Systems(MES)의 합병은 더 이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방산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기다린 것뿐 아니라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서 수년간의 논의

가 있는 후에 이루어진 영국의 합병은 그동안 근소하게 이루어진 진전과 친선관계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약 124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MES와의 합병 및 새로운 BAe를 탄생시킨다는 합의서에 따른 계획을 BAe에서 발표한 후, 독일의 DaimlerChrysler Aerospace (Dasa)는 이 움직임을 “Dasa-BAe와 같이 안정적인 유럽 수평 합병을 불가능하게 하고 유럽 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Dasa는 동사가 “이제 다른 유럽 및 대서양 지역의 선택안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Dasa 입장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독일과 프랑스 업체간의 긴밀한 유대로 인해 제2의 그룹을 이루게 되고 소규모 유

럽 업체들은 양개 그룹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유럽은 양극화될 수 있다.

그러나 Dasa의 내부 소식통은 “유모차 밖으로 장난감을 많이 던지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BAe와 합병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한 임원은 “우리는 British Aerospace와 유로파이터 및 에어버스에 대해 매일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Dasa의 공식적인 반응은 British Aerospace가 약간의 변화를 하여 빠져 나갈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는 그 합병이 계획대로 진

행된다면'이라고 말하며 영국이 우리의 자존심을 다독겨려줄 수 있는 선택 여지를 남겨 놓았다"며 그는 현상태의 거래는 관리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Dasa의 다른 임원은 새로운 단일 방산 항공사에 대한 Dasa의 25% 출자가 최초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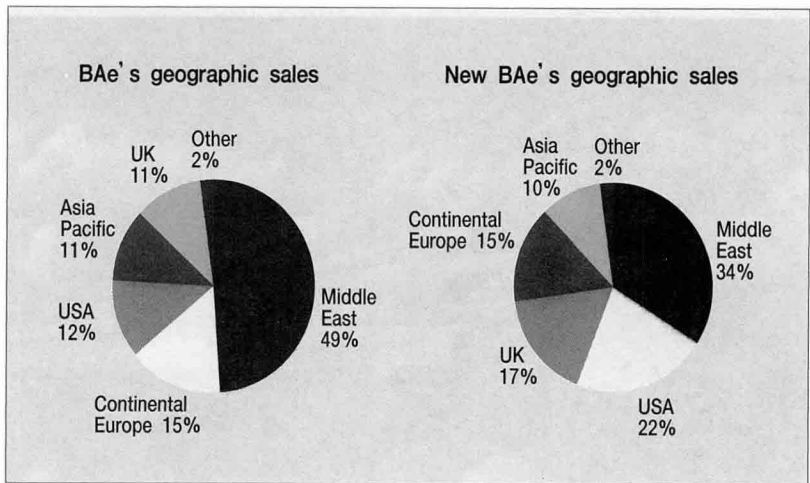
에 반대로 논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이 임원은 새로운 BAe가 산하의 STN Atlas Elektronik를 통해 독일 해군 조달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Dasa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Dasa는 지난 주 Raytheon 및 다른 미국 전자업체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지난 주 서명된 합의서에 따르면 GEC 주주들이 새로운 BAe 주식 11억7천만주를 받게 되어 BAe주주들은 새 업체의 약 63.3%, GEC 주주들은 36.7%를 가지며 MES에 대한 기업 가치는 77억 파운드(127억불) 이상이 된다.

BAe 임원들은 새로운 합의에 의해 BAe는 유럽의 최대 항공 방산 업체이자 미국 업체인 Lockheed Martin과 Boeing에 이어 세계 3위의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합의서는 지리적인 판매분포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새로운 BAe는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15% 줄이고 미국과 영국에 대한 판매를 각각 10%와 6% 증대시킬 것이다. 중동의 번덕스러운 "오일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BAe의 재정 기반과 안전은 강화될 것이다.

이 거래로 인해 BAe는 국제적인 범위를 대폭 확대, 강화하였으며 Alenia Marconi Electronic Systems와 Tracor를 통해 이탈리아와 미국에 신규 진출을 하게 되고 다른 국가에서의 위치도 높게 되었다.

BAe의 최고 경영자인 John Weston씨는 본사 경비, 공동사업 활동 및 자원과 같은 분야의 중복 및 비용 제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년 275백만 파운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Weston씨는 이러한 절약이 주로 양개사 활동의 상승작용을 통해 이

루어질 것이며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의 중복으로 인해 "우리가 부족한 핵심 사업으로 배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1차년도에 수익 저하가 없을 것이며 2001년까지 10% 수익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Dasa 임원들의 이외에도 불구하고, Weston씨는 이번 합병이 유럽 전체의 통합에 "합치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모 장관은 Dasa가 대화를 재개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GEC의 최고 경영자인 Simpson경은 프랑스 Thomson-CSF와의 협이가 BAe와의 최종 거래 순간까지 계속되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 차이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BAe와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주들의 이해는 합병으로 극대화된다"고 덧붙였다.

〈JDW '99. 1. 27 P.21〉

터키의 군사시설 개조

터키의 가장 오래된 방산업체중 하나인 Machines and Chemical Industries Board (MKEK)가 첨단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민영화될 것으로 보이며 군사용 제품만을 생산할 것이다. MKEK 재편의 최종 마무리는 3월중 있을 참모총장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6월 MKEK Kirikkale 탄약공장의 폭발로 인하여 동사는 쿠르드 노동당 반군에 대처하기 위한 탄약 수요를 해결하게 위해 스페인, 루마니아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MKEK는 '98년말 공장 재건립을 위한 경쟁 입찰을 발주하였으며, 이 새로운 시설에서는 하루 500개의 폭탄 충전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MKEK사에서 생산하는 각종 포탄류

또한 MKEK는 터키군과 계약을 맺어 향후 10년간 육군이 소요로 하는 탄약을 공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55mm 포탄, 106mm 대전차탄, 105mm 전차탄, 다양한 구경의 박격포탄, 40mm 수류탄, 5.56mm 및 7.62mm 소화기탄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의 Heckler & Koch는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7.62mm G3를 교체하기 위해 터키 MKEK 공장에서 5.56mm G36 강습소총 50만정을 조만간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5.56mm SS 109탄의 생산도 포함되어 있다.

〈JDW '99. 1. 27 P.22〉

SAGEM 프랑스 방산 전자 주식 취득

프랑스 SAGEM은 2년간 적자를 기록한 방산전자 회사 SFIM의 주식

67%를 프랑스의 2개 그룹으로부터 매수하여 인수하였다.

원거리 통신 및 군사 전자 부문의 주요 업체인 SAGEM은 Paribas 은행그룹과 Framatome사로부터 SFIM 주식 각 33.3%와 33.7%를 주당 238.5프랑(42.5불)에 매입, 총 2,140만 불을 지급키로 제안하였다.

이 거래는 1월 15일 회사 인수를 예상하여 거래가 정지될 당시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평가되던 주가인 주당 523프랑에서 크게 할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액 주주들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된 바로는 불과 7개월전 Framatome은 항공 전자와 주전자, 헬기용 고성능 전자공학 전문업체인 Thomson-CSF가 주당 600프랑 이상의 가격으로 SFIM을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였다.

실제 오랫동안 Thomson은 SFIM을 매수할 최우선 업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Thomson은 지난 7월 Framatome로부터 거절당하고 SFIM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결론지은 후 제안을 철회하였다.

이 매수로 지난해 총 수익 188억 프랑중 20%정도를 차지하였던 SAGEM의 방산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JDW '99. 1. 27 P.22〉

〈방진회 해외사업팀 제공〉

